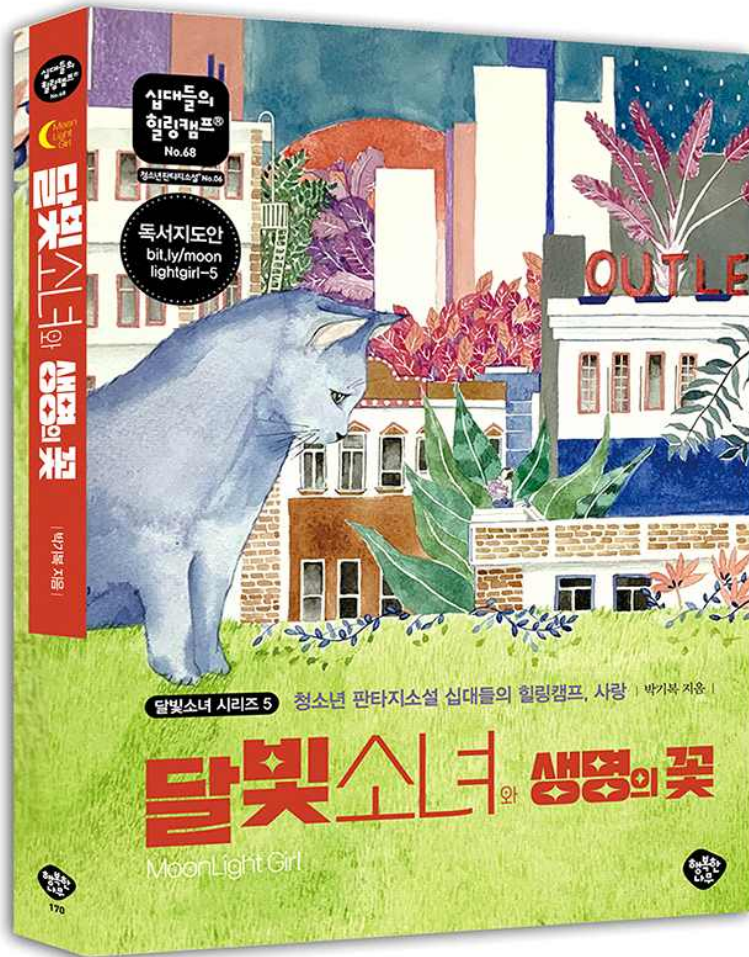


학생용 독서 활동지(중학생)

달빛소녀와 생명의 꽃

청소년 판타지소설 십대들의 힐링캠프, 사랑



박기복 글 / 행복한나무 / 196쪽

- ☞ 주제어 : # 청소년 성장소설 # 십대들의 힐링캠프 #생명 #아마존 #탐욕 #사랑
☞ 분 류 : 문학 > 한국문학 > 청소년소설

중학교	학년	반	번
이 름			

달빛소녀와 생명의 꽃

청소년판타지소설 십대들의 힐링캠프, 생명

구성

활동	수업	활동 제목	세부 내용
읽기 전 활동	1차시	•책과 만난 첫인상 •검색은 나의 힘	•책 표지를 살피며 감정과 생각을 떠올린다. •검색을 통해 필요한 배경지식을 미리 쌓는다.
	2차시	•거침없이 쓰기	•소설의 핵심 상징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해 본다. •거침없이 쓰기를 통해 글쓰기 솜씨를 키운다.
참고자료	책과 친해지는 습관		
읽기 중 활동	3차시	• 줄거리 정리하기 • 잠깐 멈춤! 생각! • 옮겨 쓰고 낭독하기	• 사건과 감정/생각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정리한다.
	4차시		• 지금까지 읽은 내용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5차시		• 본문 일부를 옮겨 쓰고 낭독하며 책의 맛을 느낀다.
읽기 후 활동	6차시	• 내용 이해하기 • 나와 연결하기 • 깊이 이해하기	• 다양한 활동을 통해 책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한다.
	7차시	• 토론하기	• 책에서 뽑은 주제로 토론한다. • 존중의 마음으로 토론하고, 새로운 배움을 얻는다.
	8차시	• 생각 확장하기	• 책의 주제의식을 깊이 있게 탐구한다.
참고자료	독후감을 쉽게 쓰는 방법		
독후감 쓰기	9차시	• 독후감 쓰기 준비 • 독후감 쓰기	• 편하고 쉽게 독후감을 쓰는 요령을 익힌다.
	10차시	• 독후감 공유하기	• 독후감을 공유하며 생각의 폭을 넓힌다.

책과 만난 첫인상

표지는 책의 얼굴입니다. 사람의 얼굴에 많은 의미가 담겼듯이 책 표지에도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책과 얼굴을 맞대고 표지를 살피는 데서 독서가 시작됩니다.

1. [제목] 예쁘다고 느낀 꽃이 있나요?

2. [제목] 여러분은 생명을 사랑하나요?

3. [앞표지] 표지의 고양이에게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검색은 나의 힘

소설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쌓으면 책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아래 단어로 검색해서 알게 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세요.

#아마존 산림파괴	#공장식 축산	#후각장애

거침없이 쓰기

깊이 고민하지 말고, 잘 쓰겠다는 목표도 버리고, 주제어를 떠올리며 손이 가는 대로 빠르게 씁니다. 루드비히 보른은 '사흘 안에 독창적인 작가가 되는 법'이란 글에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거침없이 풀어놓으면 훌륭한 글을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의식보다 무의식이 훨씬 깊고, 풍부하며, 창의성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으로 쓴 글은 솔직하며, 솔직한 글이 좋은 글입니다.

- 주제어를 보고 글을 쓰기 전에 1분 이내로 잠깐만 생각합니다.
-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씁니다. 최대한 빨리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 글을 쓰는 도중에 앞부분에 무엇을 썼는지 절대 읽지 않습니다.
- 다 쓰고 나면 걸린 시간을 적습니다.
- 빠르게 쓰되 글씨는 또박또박 알아보기 쉽게 씁니다.
- 다 쓰고 나면 함께 읽으며 공유합니다. 공유할 때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소설은 생명을 자기 몸처럼 아끼는 아이의 사랑이 분노의 연기로 퍼져가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허의 즐거움을 위해 생명을 함부로 파괴하고, 지구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현대인은 먹는 것에서만 행복을 느끼는 원초적인 존재로 퇴화되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맛'에 얽힌 이야기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 주제어 : 맛

걸린 시간 : ___분 ___초

100

200

책과 친해지는 습관

● 한 달에 한 권은 책을 삽니다.

책을 사려면 책을 살펴야 하고, 좋은 책을 고르다 보면 책을 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돈을 들이면 그만큼 애정이 가고, 책꽂이에 꽂아두면 나중에라도 읽게 됩니다. 책과 친해지는 으뜸 방법은 책을 사는 것입니다.

● 책으로 하루를 열고 마감합니다.

‘아침10분독서’가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는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자기 전에 책을 읽으면 뇌파가 안정되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휴대전화가 아니라 책으로 아침을 열고, 하루를 닫으세요.

● 책에 흔적을 남기며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책을 읽을 때 그들이 읽는 책은 정말 같은 책일까?”(미하엘 엔데/모모 작가)
같은 책을 읽어도 인상 깊은 부분, 배운 점, 느낀 점이 다 다르기에 실제로는 저마다 다른 책을 읽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읽을 때는 밑줄을 긋고 메모하면서 책과 대화를 나누세요. 그러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책이 탄생합니다.

● 읽기를 멈추고 골똥히 생각합니다.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공자)
아무리 좋은 책도 자기 생각을 거치지 않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진짜 자기 것이 되지 못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자여, 그대 이름은 바보!’란 말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바보 같은 사람이 됩니다. 책을 읽는 중간 중간에 잠시 멈추고, 읽은 내용을 골똥히 생각해 보세요.

● 하루에 한 번은 낭독합니다.

낭독은 책 읽는 재미를 키우고, 뇌를 풍성하게 자극하며, 기억을 촉진하고, 집중력을 높이며, 감정 표현력을 키웁니다. 또한 읽기 능력이 향상되고, 발음이 좋아지며, 독해력과 글쓰기 실력도 길러집니다. 옛 선비들은 낭독을 핵심 공부법으로 삼았습니다. 책을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 책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줄거리 정리하기

소설을 이해하려면 먼저 줄거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줄거리를 정리하라고 하면 올챙이처럼 앞부분만 자세히 쓰고 뒷부분은 대충 마무리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당한 양으로 충실하게 이야기를 정리하면 책을 이해하는 힘이 저절로 길러집니다. 줄거리를 잘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건을 인과관계에 맞게 기록합니다. 둘째, 등장인물의 생각과 감정이 나타나고 변화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사건, 감정, 생각을 적절하게 결합하면 줄거리가 됩니다.

구분	핵심 사건	핵심 감정 / 생각
<01> 고기요정 공나빈		
<02> 민들레꽃		
<03> 철조망		

잠깐 멈춤! 생각!

멈추고, 생각하는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고, 인물들을 머리에 그려보기도 하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도 상상해 보세요. 책에서 읽은 문장을 그대로 떠올려도 좋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질문도 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안에 떠오른 **생각, 느낌, 고민, 질문 등을 적으세요.**

움거 쓰고 낭독하기

이제까지 읽은 대목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또박또박 움거 적습니다.
다 적은 뒤에는 소리 내어 읽습니다.

잠깐! 고민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틈새에서 자라는 식물을 오랫동안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느낌을 적어보세요.

그날 마지막 수업은 국어였다. 《옥상의 민들레꽃》이라는 책으로 수업했는데, 옥상이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꽃
갓갓하게 자라는 민들레꽃을 만나 살아갈 용기를 얻는 대목에서는 주인공 못지않게 나도 몽클했다. 행사 준비로
회의에 들어간 유미와 보미를 기다릴 때도 수업 받은 감흥이 길게 이어졌다. 민들레꽃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
니 주위에 무수히 자라는 생명이 전과 다르게 다가왔다. 특히 콘크리트 틈새에서 자라는 작은 풀잎이 유독 눈
에 띄었다. 그 강인한 생명력을 가까이서 느끼려고 쭈그려 앉았다.

‘어쩔 이리 강할까?’

- 28~29쪽 -

줄거리 정리하기

소설을 이해하려면 먼저 줄거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줄거리를 정리하라고 하면 올챙이처럼 앞부분만 자세히 쓰고 뒷부분은 대충 마무리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당한 양으로 충실하게 이야기를 정리하면 책을 이해하는 힘이 저절로 길러집니다. 줄거리를 잘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건을 인과관계에 맞게 기록합니다. 둘째, 등장인물의 생각과 감정이 나타나고 변화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사건, 감정, 생각을 적절하게 결합하면 줄거리가 됩니다.

구분	핵심 사건	핵심 감정 / 생각
<04> 피 묻은 교복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05> 푸른 눈물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06> 고양이의 복수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hr/>

잠깐 멈춤! 생각!

멈추고, 생각하는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고, 인물들을 머리에 그려보기도 하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도 상상해 보세요. 책에서 읽은 문장을 그대로 떠올려도 좋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질문도 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안에 떠오른 **생각, 느낌, 고민, 질문 등을 적으세요.**

움거 쓰고 낭독하기

이제까지 읽은 대목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또박또박 움거 적습니다.
다 적은 뒤에는 소리 내어 읽습니다.

잠깐! 고민

도로에서 차에 치여 죽은 동물을 본 적이 있나요? 만약 있었다면 그때 어땠나요?

“버스 타고 오는데 느닷없이 고라니가 도로에 뛰어들었어. 고라니가 나타날 곳이 아닌데 길을 잃고 그곳까지 왔나 봐. 고라니는 버스에 부딪혔고, 버스기사가 욕을 해댔어. 나는 고라니가 얽려돼서 내려달라고 했어. 버스기사는 투덜대면서도 문을 열어줬어. 차에서 내려 살펴보니 고라니가 버스 바퀴 옆에서 피를 흘리며 공포에 떨고 있었어. 아직 생명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버스기사가 빨리 치우라고 욕을 해대서 어쩔 수 없이 옆으로 조금 옮겼고, 버스는 떠났어. 죽어가는 고라니를 살피는데 배가 이상했어.”

설마, 아니기를 바랐다.

“새끼가…….”

-79 쪽

줄거리 정리하기

소설을 이해하려면 먼저 줄거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줄거리를 정리하라고 하면 올챙이처럼 앞부분만 자세히 쓰고 뒷부분은 대충 마무리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적당한 양으로 충실하게 이야기를 정리하면 책을 이해하는 힘이 저절로 길러집니다. 줄거리를 잘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건을 인과관계에 맞게 기록합니다. 둘째, 등장인물의 생각과 감정이 나타나고 변화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사건, 감정, 생각을 적절하게 결합하면 줄거리가 됩니다.

구분	핵심 사건	핵심 감정 / 생각
<07> 사라진 그림자		
<08> 질푸른 안개		
<09> 능력자들		
<10> 사랑한다면		

잠깐 멈춤! 생각!

멈추고, 생각하는 책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고, 인물들을 머리에 그려보기도 하고,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도 상상해 보세요. 책에서 읽은 문장을 그대로 떠올려도 좋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질문도 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안에 떠오른 **생각, 느낌, 고민, 질문 등을 적으세요.**

옴겨 쓰고 낭독하기

이제까지 읽은 대목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을 또박또박 옴겨 적습니다.
다 적은 뒤에는 소리 내어 읽습니다.

잠깐! 고민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긴장으로 흔들리던 호흡이 점점 차분해지면서 내 어깨에 얹은 강산이 손에서 힘이 느껴졌다. 강산이 심장 소리가 들렸다. 강인하고 든든했다. 혼자서 넓은 밭을 씩씩하게 가꾸는 굳센 심장이었다. 강산이는 강했다. 생명을 사랑하고 길러내는 진정한 강함이 나약한 두려움을 찢으며 그 진면목을 드러냈다. - 183쪽

내용 깊이 이해하기

【질문1】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보세요.

오월 햇살이 여름이라도 만난 듯 뜨거운 5교시였다.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기에는 애매한 날씨였다.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 애들이 눈치를 보다가 창문을 열었다. 다행히 미세먼지는 별로 없었다. 환기가 되자 지루함에 지쳐가던 교실에 다시 생기가 돌았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맑고 신선한 공기와 함께 별 한 마리가 들어왔기 때문이다.

“까악, 별이야!”

권은희가 요란스럽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의자는 넘어지고 책과 연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별은 애들 머리 위로 무섭게 날아다녔고, 애들이 도미노처럼 넘어지고 엎어졌다.

“어머나!”

김민정 선생님도 놀라서 넘어질 뻔했다.

나는 별 한 마리에 호들갑 떠는 꼴이 우습기만 했다.

“어딴어? 어딴어?”

이명식과 최기현을 비롯한 남자애들 몇 명이 책을 들고 별을 잡겠다고 뛰어다녔다. 침입자에 맞서 싸우는 영웅처럼 교실을 헤집고 다녔다. 모두 한마음이 되어 작은 별 한 마리를 죽이려 들었다.

“그러지 마!”

갑자기 김강산이 이명식에게 달려들었다. 별을 향해 책을 휘두르려던 이명식이 김강산에게 밀려서 넘어졌다.

“너, 뭐야?”

“재, 왜 저래?”

여기저기서 김강산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죽이지 마! 그냥 내보내면 되잖아!”

김강산은 쏟아지는 원성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37~38쪽

1-1. 아이들은 왜 별을 죽이려 할까요?

1-2.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죽이려는 쪽인가요, 살려서 내보내려는 쪽인가요?

【질문2】 한낱 꽃 한 송이에 슬피 우는 감정을 헤아려보세요.

쪼그려 앉은 김강산 손이 느리게 움직였다. 천천히 바닥을 어루만졌다. 그제야 짓밟힌 민들레가 보였다. 꽃망울은 노란 피뭉치를 흘리며 으스러졌고, 줄기와 잎은 짓이겨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실수로 밟은 게 아니었다. 죽여 없애려고 일부러 힘주어 밟은 게 확실했다. 생명을 다해버린 민들레와 소설 속 장면이 겹치자 아릿한 촉감이 감각세포를 예민하게 찢어대는 것 같았다.

죽은 민들레를 쓰다듬던 김강산 손이 파르르 떨렸다.

‘설마!’

눈이 축축해지더니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다. 생명을 다한 민들레를 추모하는 눈물이었다. 진한 이별도, 애달픈 슬픔도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 감정이 낯설기만 했다. 더구나 사람도 반려동물도 아니고 한낱 꽃 한 송이에 슬피 우는 감정은 헤아릴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그래도 그렇지. 민들레가 죽었다고 저렇게 서럽게 울다니….’

하염없이 우는 김강산을 보며 나는 돌하르방처럼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 32쪽

【질문3】 강산이의 생각에 대한 의견을 적어보세요.

“ 죽었을 때는 왜 그렇게 서럽게 울었어?”

“생명이 죽었잖아. 아무 의미 없이…….”

“지금도 무수히 많은 생명이 끊임없이 죽고 태어나. 한 생명이 죽을 때마다 울면 평생 울고만 살아야 할 거야.”

“생명이 죽는다고 늘 우는 건 아니야. 농사지을 때면 내 손에도 무수한 생명이 죽어. 잡초로 불리는 풀은 뽑아서 죽이고, 농작물에 해로운 벌레도 내가 다 죽여. 심지어 먹으려고 키우는 채소도 지나치게 많으면 안 되니까 채 자라기도 전에 뽑아내. 그것도 생명을 빼앗는 짓이야. 아버지는 생명을 기르는 과정은 다른 생명을 죽이는 과정이라고 하셨어.”

“무의미한 죽음에 슬퍼하는 거니?”

“한 생명이 살기 위해 다른 생명을 먹는 건 어쩔 수 없어. 내가 식물이 아니기에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을 죽여서 먹어야만 해. 그렇지만 그저 혀를 기쁘게 하려고 생존에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음식을 사치스럽게 먹고, 그저 더 힘이 세다는 이유로 무고한 생명을 해치는 짓은 불필요해. 그런 짓을 접할 때마다 그냥 지나치기가 힘들어.”

한편으론 이해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농사지을 때는 자기 손으로 민들레를 뽑아내면서, 아스팔트 위에 핀 민들레가 짓밟혀 죽을 때는 슬픔을 느낀다니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감정이었다. <68~69쪽>

토론하기

우리는 지구 환경을 위해 채식이나 채식 위주의 식사로 바뀌어야 할까요?

4교시 사회수업이었다. 선생님이 지구온난화와 환경파괴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더니 영상 한 편을 틀어 주었다.

“와, 아마존이다.”

사진만 보고 몇몇 애들이 아는 체했다. 틈만 나면 잘난 척하는 애들이 귀엽게 느껴졌다. 영상에서는 한동안 하늘에서 내려다본 아마존이 펼쳐졌다. 푸르른 강과 진한 초록빛 숲은 무척 아름다웠다.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졌다. 조금 뒤, 1년이 지난 시점에 같은 곳을 찍은 영상이 나왔다. 황토색 위로 먼지만 폴폴 날렸다. 아름다운 숲이 황무지로 망가진 것이다. 숲이 황무지가 된 까닭은 곧 드러났다. 무분별한 벌목이 원인이었다. 기계톱과 불도저 앞에서 숲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저런 무책임하고 잔인한 짓을 벌이는 사람들이 미웠다. 그러나 이어진 영상을 보고는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여러분이 먹은 고기 한 점이 방금 아마존에서 나무 한 그루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아마존 숲이 사라지는 이유 중 80%가 육류 섭취 때문이라고 하니, 고기 한 점이 나무 한 그루를 사라지게 한다는 표현은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었다.

“먹이 사슬이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에너지 효율은 90%가 떨어집니다. 소를 키우기 위해 100이라는 에너지를 쓴다면 인간은 그 가운데 겨우 1밖에 섭취하지 못합니다. 풀이 100이라면 소가 얻는 에너지는 10, 사람이 얻는 에너지는 1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먹는 고기로 인해 아마존은 파괴되고 있습니다.”

뒤이어 소나 돼지를 대규모로 사육하는 ‘공장식 축산’이 환경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를 증명하는 통계 자료가 제시됐다. 가축을 사육하면 메탄가스가 많이 발생한다. 메탄가스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인 이산화탄소보다 환경에 20배나 더 나쁜 영향을 주고, 가축이 쏟아내는 배설물은 지구온난화뿐만 아니라 수질과 공기도 오염시킨다고 했다. 육식이 지구를 망가뜨리는 원흉이었다.

마치 나를 겨냥해서 만든 영상 같았다. 고기가 없으면 밥을 안 먹는 내가 바로 아마존을 파괴하고, 지구를 망가뜨리는 주범이었다. 마음이 무거웠다. 속이 답답해졌다. 영상이 끝나고 모둠활동이 이어졌다. 영상을 본 감상을 정리한 후 식습관을 어떻게 바꿀지 다짐하고 발표하는 과제가 나왔다.

모둠활동에서 나오는 말들은 뻘했다. ‘고기를 적게 먹겠다, 지구에게 미안하다’ 같은 정해진 결론뿐이었다. 그 영상을 보고 다른 말을 하기는 어려웠다. 나는 평소와 달리 의견도 제대로 내지 못했다. 지금 당장 고기를 즐기는 습관을 바꿀 자신은 없었다. 그렇다고 고기를 탐하는 내 식욕이 지구를 파괴한다는 지적을 외면하기도 힘들었다. 의견을 안 낸다고 구박까지 받았지만 어쩔 수 없이 침묵을 택했다. 그게 내 최선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급식 시간이 다가왔다. 식당으로 가는데 보미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후추와 허브로 밀간을 한 스테이크야.”

식단표를 보고 이미 알고 있었지만 ‘스테이크’라는 말에 나도 모르게 입에 침이 고이고 울적했던 기분이 나아졌다.

‘뭐야, 몇 분 전에 날 괴롭히던 그 짹짹함을 벌써 잊은 거야?’

맛있는 고기를 떠올리자마자 감정이 바뀌는 나 자신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자책은 오래가지 않았다. 냄새가 진해졌는지 애들은 급식실이 가까워질수록 호들갑을 떨었고, 직접 눈으로 스테이크를 확인하자 내 혀가 내 뇌를 지배했다. 아마존도 지구도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 채식	□ 최소화	□ 육식
우리가 사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 채식을 하는 게 좋다.	육식이 세상을 망치니 채식 위주로 먹고 육식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육식은 필요하고 고기가 더 맛있으므로 계속 먹어야 한다.

■ 내 주장의 근거

■ 친구들의 근거

나와 같은 주장인 친구들의 근거	나와 다른 주장인 친구들이 제시한 근거

■ 토론을 마치고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생각 확장하기

【질문1】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참 특별한 아이구나. 어린 나이에 벌써 그런 깊은 생각을 한다니……. 그 아이 말처럼 죽음이 삶을 가능하게 하지. 풀이 죽어 채소를 살리고, 채소가 죽어 짐승을 살리고, 짐승이 죽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죽어 미생물을 살리고, 미생물로 풀과 채소가 살아가니 죽음이 곧 삶이야.”
- 89쪽 -

【질문2】 어떤 인간들은 왜 오직 쾌락을 위해 생명을 괴롭히고 죽이는 걸까요?

고양이는 곧 끊어질 듯 가는 숨을 몰아쉬었다. 강산이가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품에 안고, 뒷덜미를 어루만졌다. 고양이가 푸른 눈동자를 껌벅이며 강산이와 눈인사를 했다. 강산이 눈에서도 푸른빛이 돌았다.
“잘 가. 너를 괴롭히는 인간이 없는 곳에서 행복해지렴.”
강산이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새끼 고양이 눈에 푸른 눈물이 맺히더니 몸이 축 처졌다.
참았던 눈물이 고장 난 수돗물처럼 쏟아졌다. 아빠가 나를 꼭 안았다. 아빠 품에 안겨서 하염없이 울었다. 강산이는 울지 않았다. 가만히 앉아서 숨이 멈춘 고양이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기만 했다.
수의사 선생님이 화장해 주겠다고 했지만, 강산이는 자신이 직접 묻어주겠다고 했다. 아빠 차로 강산이 집으로 갔다. 나와 아빠, 강산이와 강산이 엄마가 함께 애달픈 죽음을 애도하며 장례를 치렀다. 강산이는 정성스럽게 무덤을 만들었고, 새끼 고양이 눈동자를 닮은 푸른 꽃 한 송이를 무덤 위에 올려놓았다.
‘이명식, 최기현, 박대수, 구찬민, 신영호!’
이 이름들에 화가 났다. 이가 갈렸다. 얼마나 심하게 괴롭혔기에 몇 시간씩 수술해야 할 정도로 몸을 망가뜨렸단 말인가? 어떻게 그 어리고 연약한 생명을 그렇게 잔혹하게 괴롭힐 수 있던 말인가? 더구나 살려고 도망친 새끼 고양이를 향해 돌까지 집어 던지다니…….
- 108~109 쪽

【질문3】 왜 말보다 꼭 안아주는 것이 사랑하는 이에게 더 깊은 위로가 될까요?

불행한 예감은 빛나가지 않았다. 강산이 눈에서 다시 굵은 눈물이 떨어졌다.

“조금 뒤 어미가 죽었고, 꿈틀대던 새끼도 얼마 못 가서 죽었어.”

그 뒤로는 말하지 않아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강산이는 엄마 고라니와 채 태어나지 못한 새끼 고라니를 땅에 묻어준 것이다. 그것도 맨손으로 흙을 파서, 두 생명을 묻으며 강산이가 얼마나 울 부짖었는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다.

슬퍼하는 강산이가 애처로웠다. 내가 다쳐서 울면 엄마는 늘 나를 꼭 안아주었다. 엄마가 나를 위로하듯이 나도 강산이를 위로하고 싶었다. 그 슬픔을 다독이고 싶었다. 나는 마음이 가는 대로 따랐다. 울먹이는 강산이를 살며시 안았다.

“괜찮아. 네가 잘 보내줬잖아.”

강산이 슬픔이 푸른 파도에 실려 내 몸을 타고 일렁였다. 처음에는 슬픔이 요동치며 매서운 파도처럼 흔들렸지만, 점점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잤아들었다.

- 79~80쪽

씩씩하게 강산이에게 갔다. 강산이 눈을 보며 다가갔다. 강산이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보호막을 벗어났다. 푸른 안개가 나를 휘감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외롭고 당황하고 슬프고 걱정이 태산 같은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슬픔이 분노에 물들어 한없이 폭발할 때면 어떻게 해야 그것들을 달랠 수 있을까? 내게 떠오른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그게 맞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라면 그걸 해야만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기도 했다. 나는 강산이를 꼭 안았다. 온 마음을 다해 껴안았다. 강산이 몸은 차가운 돌 같았다. 몸이 긴장과 걱정과 공포와 슬픔으로 굳어 있었다.

“나, 무서워.”

강산이가 힘들게 입을 뗐다. 토미리스에게 붙잡혀서 겪었던 고통이 떠올랐다.

“벌레들처럼, 너도 고통 속에 죽을까 봐 두려웠어.”

강산이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강산이가 나를 걱정했구나!’ ‘이 엄청난 폭주가 나 때문이었구나.’ ‘나를 위해서…… 나를 지키려고…….’

더 따스하게 껴안았다.

‘이젠 내가 너를 지킬게.’

강산이 손이 슬며시 내 어깨에 올라왔다.

“그 아기들이 죽어 나갈 때마다 으깨지고 부서지는 고통이 그대로 내 몸으로 전해졌어.”

아파하면서도 강산이는 울지 않았다. 어깨가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다른 손길이 느껴졌다. 세상에서 강산이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건네는 손길이였다. 우리 엄마가 나를 안아주듯이, 강산이 엄마도 강산이를 꼭 껴안았다.

- 182~183쪽 -

독후감을 쉽게 쓰는 방법

흔히 독후감은 '동기-줄거리-감상', 또는 '요약-인상 깊은 장면-경험·감상'과 같은 형식으로 씁니다. 이런 형식으로만 쓰니 독후감이 딱딱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창의적인 형식'을 택하면 독후감 쓰기도 쉽고, 내용도 신선합니다. 독후감을 쓸 때는 1)형식을 택하고, 2)형식에 맞는 준비를 한 다음, 3)핵심 요령을 기억하면서 거침없이 쓰면 됩니다. 초고를 쓴 뒤에는 쪽 읽으면서 부드럽게 고치기만 하면 독후감이 완성됩니다.

형식선택	준비항목	독후감을 쓰는 핵심요령
□편지쓰기	①편지를 받을 대상 설정 ②편지에 다룰 책 내용 선택 ③편지로 전하고 싶은 말	• 편지 쓰기 형식에 맞춰서 쓴다. (모르면 조사하기) • 책의 중심 내용과 관련된 생각과 감정을 담는다.(신변잡기X)
□인터뷰	①인터뷰 대상 설정 ②질문을 다양하게 준비 ③답변 생각해 보기	• 여는 글 : 인물을 간단하게 소개하거나 인터뷰 취지를 쓴다. • 인터뷰 : 실제 인물이 답하듯이 쓴다.(역지사지) • 닫는 글 : 인터뷰 내용 정리, 감상, 생각 등을 정리한다.
□생활글	①경험을 떠올리게 한 내용 ②책과 연결된 자기 경험 ③경험과 독서로 깨달은 점	• 책 내용을 소개하면서 자기 경험과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 자기 경험을 실감나게 소개한다. • 소설과 비슷한 점을 거론하며 깨달고 느낀 점을 제시한다.
□기행문	①경험할 장소나 상황 선택 ②나라면 어떨지 생각 ③경험으로 배우고 느낀 점	• 기행문 형식에 맞춰 쓴다. (모르면 조사하기) • 내가 소설 속 장소를 방문하거나, 상황에 처하는 것처럼 설정하고 흥미진진하게 서술한다.
□신문기사	①책에서 다룰 사건 선택 ②사건을 기사처럼 정리 ③사건을 평가하는 관점	• 기사를 쓰는 형식에 맞춰 쓴다. (모르면 조사하기) • 사건소개, 인터뷰, 사건에 대한 평가를 적절히 섞어서 쓴다. • 기사처럼 제목을 붙인다.
□인물분석	①인물의 특성을 정리 ②평가할 행동이나 선택 정리 ③나의 평가 준비	• 평가할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한다. • 일정한 기준으로 긍정과 부정을 가르는 것이 평가이므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물의 행동이나 선택, 사고방식 등을 다룬다.
□한 문장	①좋은 문장 하나만 선택 ②문장이 나온 배경 정리 ③문장에서 얻은 배움 정리	• 그 문장이 나온 맥락을 소개한다. • 한 문장이 내게 끼친 영향, 깨달음, 느낀 점 등을 개인의 경험과 연관지어 자세히 서술한다.
□토론	①토론 주제 뽑아내기 ②토론주제가 나온 상황 정리 ③내 의견 정리	• 토론주제가 나온 상황을 정리한다. • 자기 의견을 선택한 근거를 제시하며 주장한다. • 반드시 반대 의견을 다룬다.(반론과 재반론 형식으로)
□시사문제	①책과 연결된 시사문제 선택 ②시사문제 정리 ③시사문제 평가 또는 분석	• 책 내용과 시사문제를 적절하게 섞어서 소개한다. • 책에서 수립한 관점을 바탕으로 현 사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서평	①소개할 대상 선정 ②책의 매력 정리 ③꼭 읽어야 할 이유 정리	• 서평은 책 소개글이므로 소개할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 • 어떤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 좋을지 설명한다. • 책이 지닌 매력과 책을 권하는 이유를 제시한다.

※ 자세한 설명 및 실제 독후감 예시는 『청소년 독서콘서트』(박기복/행복한나무) 참조

독후감 쓰기 준비

- 1단계 : 자신이 원하는 독후감 형식을 선택합니다.
- 2단계 : 선택한 독후감 형식의 준비사항①~③을
오른쪽 '준비사항①,②,③'에 각각 적습니다.
- 3단계 : 독후감에 적을 세부 내용을
각 준비사항에 맞게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독후감 형식	준비사항	
<input type="checkbox"/> 편지쓰기	①편지를 받을 대상 설정 ②편지에 다룰 책 내용 선택 ③편지로 전하고 싶은 말	<p>준비사항① 인터뷰 대상 설정</p> <p>인터뷰 대상 : 설정 설치는 주요, 동인물과 정복자에게 섰다. 전쟁으로 모든 것 잃음. 남편 신장을 잃은 전 참모장이자 많이 인형극장에서 활동해 지냄. 친구가 왜 신장을 받지 있는지 이유를 파악.</p> <p>준비사항② 글꼴을 다양하게 준비</p> <p>11 독상에 친구들을 읽었을 때 왜 친구로 여겼는지? 12 궁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13 궁중에서 지내며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인가? 14 궁중이 왜 신장을 거부했다고 생각했는지?</p> <p>준비사항③ 문법 생각해 보기</p> <p>11 문법을 잘 읽었다. 어느 때와 비교 할까? 12 문법에 맞게 읽기. 어떤 문법으로 읽었다. 13 문법은 어떻게 읽었는지. 어떤 문법으로 읽었다. 14 문법을 읽어보면 어떤 문법으로 읽었는지. 어떤 문법으로 읽었는지.</p>
■ 인터뷰	①인터뷰 대상 설정 ②질문을 다양하게 준비 ③답변 생각해 보기	
<input type="checkbox"/> 생활글	①경험을 떠올리게 한 내용 ②책과 연결된 자기 경험 ③경험과 독서로 깨달은 점	
<input type="checkbox"/> 기행문	①경험할 장소나 상황 선택 ②나라면 어떻게 생각 ③경험으로 배우고 느낀 점	
<input type="checkbox"/> 신문기사	①책에서 다룬 사건 선택 ②사건을 기사처럼 정리 ③사건을 평가하는 관점	
<input type="checkbox"/> 인물분석	①인물의 특성을 정리 ②평가할 행동이나 선택 정리 ③나의 평가 준비	
<input type="checkbox"/> 한 문장	①좋은 문장 하나만 선택 ②문장이 나온 배경 정리 ③문장에서 얻은 배움 정리	
<input type="checkbox"/> 토론	①토론 주제 뽑아내기 ②토론주제가 나온 상황 정리 ③내 의견 정리	
<input type="checkbox"/> 시사문제	①책과 연결된 시사문제 선택 ②시사문제 정리 ③시사문제 평가 또는 분석	
<input type="checkbox"/> 서평	①소개할 대상 선정 ②책의 매력 정리 ③꼭 읽어야 할 이유 정리	

독후감 형식	준비사항
<input type="checkbox"/> 편지쓰기	①편지를 받을 대상 설정 ②편지에 다룰 책 내용 선택 ③편지로 전하고 싶은 말
<input type="checkbox"/> 인터뷰	①인터뷰 대상 설정 ②질문을 다양하게 준비 ③답변 생각해 보기
<input type="checkbox"/> 생활글	①경험을 떠올리게 한 내용 ②책과 연결된 자기 경험 ③경험과 독서로 깨달은 점
<input type="checkbox"/> 기행문	①경험할 장소나 상황 선택 ②나라면 어떻게 생각 ③경험으로 배우고 느낀 점
<input type="checkbox"/> 신문기사	①책에서 다룬 사건 선택 ②사건을 기사처럼 정리 ③사건을 평가하는 관점
<input type="checkbox"/> 인물분석	①인물의 특성을 정리 ②평가할 행동이나 선택 정리 ③나의 평가 준비
<input type="checkbox"/> 한 문장	①좋은 문장 하나만 선택 ②문장이 나온 배경 정리 ③문장에서 얻은 배움 정리
<input type="checkbox"/> 토론	①토론 주제 뽑아내기 ②토론주제가 나온 상황 정리 ③내 의견 정리
<input type="checkbox"/> 시사문제	①책과 연결된 시사문제 선택 ②시사문제 정리 ③시사문제 평가 또는 분석
<input type="checkbox"/> 서평	①소개할 대상 선정 ②책의 매력 정리 ③꼭 읽어야 할 이유 정리

준비사항①

준비사항②

준비사항③

독후감 공유하기

※ 독후감을 공유할 때는 평가를 하지 말고 독자로서 반응해주세요.
글을 공유하며 서로가 지닌 생각과 느낌에 공감하고,
나와 친구가 함께 발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합니다.

1. 내가 쓴 독후감을 읽은 친구들의 반응을 적습니다.

친구이름	친구가 해준 말

2. 친구들이 쓴 독후감을 읽고 돋보이는 점을 찾습니다.

친구이름	친구가 해준 말

3. '한 학기 한 권 읽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드는 생각, 느낌을 적습니다.

※책과 친구가 되면 인생이 풍요롭게 가꿀 수 있습니다.



행복한나무 출판사

※ 청소년 성장소설 [십대들의 힐링캠프]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시리즈입니다.

청소년들이 꿈을 위해서, 지금은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꿈, 진로, 관계, 사랑, 우정 등을 키워드로 한 <성장소설>부터 과학, 신화 등의 <지식소설>도 담고 있습니다. 동학, 대장간 소녀, 소년 독립군 등의 주제를 통해 <역사소설>을 만날 수 있고,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등을 통해 <인권소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인 수학을 쉽게 읽을 수 있는 <수학소설>인 <수학탐정단> 시리즈도 있습니다. 또한, <달빛소녀> 시리즈를 통해서 판타지 소설을 만날 수 있습니다.